

한국 성경적 상담 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과제

김 규 보*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성경적 상담 운동의 배경과 새 물결의 흐름을 살펴보면 서 한국 성경적 상담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최근 성경적 상담은 복미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 안에서 규모와 영향력을 점차 확장하고 있다. 북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경적 상담의 새 물결은 한국 기독교에도 파장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성경적 상담 운동은 전통적 성경적 상담을 넘어 진보적 성경적 상담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한국의 성경적 상담 운동은 1세대 학자들이 성경적 상담의 개념과 가치, 원리를 소개하고(파종기), 1, 2세대 학자들과 실천가들이 학교와 기관 중심으로 성경적 상담의 싹을 틔우는 시기(육묘기)를 거쳐, 1, 2, 3세대가 함께 지역교회와 공공사회의 토양에 옮겨심기(이식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 성경적 상담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적 상담 운동은 신학적, 기독교 심리학적, 실천적 전문성을 갖춘 성경적 상담자를 양육해야 한다. 둘째, 성경적 상담 실천을 뒷받침하는 기독교 심리학적 이론 및 실천신학적 이론 연구가 발전되어야 한다. 셋째,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성경적 상담 방법 및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교회와 전문기관 연대 및 공적 기능을 통한 지역사회와 소통으로 성경적 상담 운동의 확산을 야기해야 한다.

주제어: 성경적 상담 운동, 기독교 심리학, 성경적 심리학하기, 실천신학, 공적 사역

• 논문 투고일: 2019년 9월 27일

• 논문 수정일: 2019년 10월 26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11월 3일

*충신대학교 상담대학원 조교수

• 본 연구는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상담분과 발표(2019년 11월 2일) 논문임.

I. 여는 글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성경적 상담의 상황을 살펴보고 성공적인 성경적 상담 운동을 위해 오늘날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상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 고통, 상처로부터 자유 함을 얻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는 복음화 사역이다(창1:26-28; 창3:1-24; 시51:5; 요8:31-32; 롬1:16-17; 롬8:31-39; 엡1:3-14; 엡2:1-10; 엡4:13-24; 갈4:19-2; 계21:3-7). 이렇게 광의의 의미로 정의할 때 성경적 상담은 인류의 창조부터 *Cura Animarum*의 전통 가운데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온 영혼 돌봄이다(Johnson, 2012a).

최근 한국 성경적 상담 운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안경승(2012)은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기독교 상담의 역사를 개관하고 성경적 상담을 포함하는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과 핵심 가치를 살펴보았다. 전형준(2012)은 한국 교회에 나타난 성경적 상담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성경적 상담은 상담신학의 정립, 교회 공동체 회복, 인간 존엄성 회복, 건강한 가정 회복, 전인 건강, 중독 치료, 여성 형성과 발달을 위한 과제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김준(2016)은 북미 복음주의 내에서 성경적 상담이 확산되는 현상을 조명하고, 그 원인을 신칼빈주의 신학과 연결하여 이에 상응하는 성경적 상담 이론 연구와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을 개진했다. 이처럼 최근 성경적 상담의 역사와 과제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오늘날 북미 복음주의 신학교와 지역교회, 전문기관들을 중심으로 성경적 상담 운동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경적 상담의 새로운 물결은 한국 기독교에

도 적지 않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다가오는 새 물결에 대해 한국 기독교는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 성경적 상담 운동은 지금 어느 시점에 있으며,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것은 시의적절한 논의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성경적 상담 운동의 배경과 새 물결의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 성경적 상담의 현주소를 평가한 후, 성경적 상담 운동의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성경적 상담 운동의 배경과 새 물결

최근 성경적 상담은 북미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 안에서 그 규모와 영향력을 점차 확장하고 있다. 정치, 경제, 교육, 환경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미국의 한 저널은 “성경적 상담의 도약(The Rise of Biblical Counseling)”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오늘날 성경적 상담의 흐름을 재조명했다. 이에 따르면, 성경적 상담은 행동 과학 이론에 다소 의존적이었던 “초기 목회상담(an earlier pastoral care)”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음의 치료적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을 중심으로 초교파 교단에 이르기까지 “매우 인기 있고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는(so popular, and so widespread)” 흐름이다(Joyce, 2017).

그러나 소위 성경적 상담(Biblical Counseling)이라고 할 때, 많은 이들은 Jay E. Adams 중심의 권면적 상담학파(Nouthetic Counseling)를 연상하곤 한다. Eric L. Johnson은 현대 기독교 상담 분과에는 설명수준 관점(the Levels-of-explanation), 통합적 관점(Integration), 기독교 심리학적

관점(Christian Psychology), 변형심리학적 관점(Transformational Psychology), 성경적 상담의 관점(Biblical Counseling)이 혼재한다고 주장했는데, 성경적 상담이라는 명칭이 5가지 관점 중 한 범주, 그 중에서도 전통적 성경적 상담(traditional Biblical Counseling)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Johnosn, 2012a; 2012b). 이런 경우 성경적 상담은 정신의학에 반발하고 반심리학적 정서를 강하게 피력한다는 비판을 받곤 한다. 그러나 사실 그 비판은 Adams가 등장할 당시의 문맥과 오늘의 발전된 성경적 상담 운동의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Adams가 기독교 상담학계에 등장하는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자. Adams는 1963년 웨스트민스터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강의를 의뢰받으면서부터 체계적인 상담연구를 진행했고, 1968년부터는 Christian Counseling and Educational Foundation (CCEF)를 중심으로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상담학과 학생들을 본격적으로 양육했다.¹⁾ 더 나아가 1976년 그는 National Association of Nouthetic Counselors(NANC)을 세워 그 영향력을 확장했다(Johnson, 2012). 또한 Adams는 1970년 *Competent to Counsel: Introduction to Nouthetic Counseling*을 시작으로, 1972년 *Christian Living in the Home*, 1974년 *The Christian Counselor's Casebook*, 1979년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등 1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며 본인의 상담신학을 개진했다.

Adams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 시기에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당시 유행하던 정신분석적 심리학에 대해 강한 비판과 우려를 표방하고

1) Adams는 1966년 Christian Counseling and Educational Cetner(CCEC)라는 기구를 먼저 세웠고, 2년 후 Christian Counseling and Educational Foundation(CCEF)로 명칭을 수정하였다(황규명, 2009).

있었다. O. Hobart Mowrer(1960)는 “Sin: The lesser of two evils”이라는 소논문을 통해 신경증, 정신증 등의 문제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질병(not sinful, but sick)”이라고만 주장하는 당시 심리학적 정황에 대해 비판하며 죄와 책임의 문제를 강조했다. 특히 Adams는 1965년 Braver College에서 진행된 Mower의 강의에 큰 영향을 받아 죄 문제와 회개에 대한 강조, 무분별한 심리학 이론의 기독교적 적용의 위험성에 대해 배웠다고 회고한다(황규명, 2009; Adams, 1970). 또한 정신의학자 Karl Menninger(1973)는 당대의 사회가 수십 년 동안 죄의 개념을 점진적으로 거부해왔음을 밝히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이라는 죄의 개념이 학문적 논의와 삶의 실천에서 상실되어 가는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Paul C. Vitz(1977)도 당시 심리학은 자기를 숭배하는 컬트(cult) 종교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Larry Crabb(1977)은 심리학과 성경의 위치를 동등하게 두는 “두 책 이론(two-book theory)”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Thomas C. Oden(1980)은 19세기와 20세기 목회신학자 혹은 기독교 상담학자들의 인본주의 심리학에 대한 의존도를 비교 분석하여 교회의 영혼 돌봄 영역까지 심리학이 기독교 신학을 대체하는 현상에 대해 경고했다.

정리해보면, Adams가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는 인본주의 심리학이 인간 이해와 해석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 관점이 점차 기독교 상담, 더 나아가 교회의 영혼 돌봄 영역까지 잠식해 가고 있던 때였다. 이는 19세기 말 과학 혁명, 그 한 종류로서 심리학 혁명이 일어난 이후, 인간 이해와 치유 영역에서 초자연적이거나 종교적, 신앙적인 논의를 배제해 가던 세속주의(secularism)의 한 맥락이다.²⁾

이런 상황 속에서 Adams(1979)는 인간의 모든 행동과 판단, 치유의

2) 세속주의(secularism)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Taylor, C. (2007) *A secular age*.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기준은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Adams에 의하면, 모든 상담이 본질적으로 신학적이기 때문이다. Adams의 말이다.

모든 상담은 본질적으로 상담사의 신학적 입장을 내포한다. 신학이라는 물결을 거치지 않고는 믿음, 가치, 태도, 관계를 변화시키는 시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신학적 입장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성경적이거나, 이단적이거나, 좋은 신학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것이 어느 쪽이든 간에 분명히 신학적이다.... 따라서 상담과 신학은 유기적 관계가 있다. 상담은 신학적 현신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다. 모든 행위와 말 속에 (설령 이런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신학적 입장이 내포되어 있다(Adams, 1979: 13).

다시 말하면, 모든 상담의 이론과 모델은 그 이면에 인간론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인간에 대한 이해는 성경 계시에 의존적이거나 상담자의 이성이나 직관, 경험 등에 기초한 신념에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신학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Adams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그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오직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Adams는 성경적 인간론이 인본주의 심리학으로 대체되어 가는 현장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의 가치를 기독교 상담의 영역 가운데 외쳤던 것이다.

그러나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그 함의는 성경의 최우선 권위를 인정함이지, 모든 과학적 방법과 이론을 배척함이 아니다. Adams는 과학으로서 심리학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 Adams의 말을 다시 인용해보자.

나는 과학을 무시할 생각이 없다. 세부적인 것을 일반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성경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해석에 도전하며, 그로 인해 성경을 다시 연구하게 하는 유용한 부속물로서의 과학을 환영한다. 그러나 정신의학의 영역에서 과학[심리학]은 주로 인본주

의 철학과 역측의 수단을 제공했다(Adams, 1975: 12).

실제로 당시 만연하고 있던 정신분석적 접근은 성경적 인간관과 전혀 다른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성추행 피해 여성인 Dora의 신경증적 증상의 원인을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그녀의 억압된 성적추동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석했다. 프로이드에게 그녀의 잦은 기침은 구강기에 고착된 성적 욕망의 표출이었고, 공황장애 같이 호흡곤란의 증세를 보이는 것은 성관계에 대한 그녀의 무의식적 욕망의 신체화 증상이었다.³⁾ 이와 같은 분석에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죄로 인한 타락과 회개의 개념은 전혀 없었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인격적 실재로서 창조주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거나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었다.

이렇게 왜곡된 심리학적 접근이 만연했던 당시 심리치료의 현장을 고려해보면, 심리학에 대한 Adams의 강한 비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성경 계시를 믿는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Adams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성경 해석의 인간적 오류를 발견하며,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유익한 도구로서 심리학은 건강한 과학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당시 세속주의에 물든 인본주의 심

3) Dora의 사례는 1963년 최초로 영문으로 출판되어 소개되고 있었다. Dora는 1900년 Freud가 약 11주 동안 치료한 히스테리 증상을 지닌 Ida Bauer의 가명이다. Freud가 유대교의 경전 “토라(Torah)”를 연상하게 하는 “Dora”라는 가명을 붙인 이유는 유대교의 가치를 담은 “토라”를 정신분석의 원리를 담은 “Dora”로 대체하여 종교의 과학화를 시도하기 위함이었다. 즉, Freud는 과학적 토라로서 정신분석을 제안하며 종교를 세속화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론 기저에는 유대 신비주의 전통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이는 종교를 부인하려는 프로이드의 무의식적, 의식적 사과의 기저에 오히려 종교적 근원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고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참고, Freud, S. (1997) *Dora: an analysis of a case of hysteria*. New York: Simon and Schuster; Bakan, D. (1965) *Sigmund Freud and the Jewish mystical tradition*. New York, NY: Schocken Books.

리학이 만들어내는 인간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오용에 대해서는 성경을 진리로 믿는 목회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맥락 속에서 Adams는 인본주의 심리학의 오류를 지적하고 심리학에 대한 과도한 의존 경향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선지자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 있는 학자들은 John Broger, John MacArthur, Wayne Mack, Ed Buckley 등이 있고, 이들은 오늘날 전통적 성경적 상담학파(traditional Biblical Counseling)로 분류된다(Johnson, 2012a).

그러나 전통적 성경적 상담학파는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상담신학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전통적 성경적 상담의 접근은 20세기 근대 심리학 연구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현대 심리학이 기독교 상담에 줄 수 있는 공헌까지 극단적으로 부인하는 경향을 낳았다. 사실 현대 심리학은 개인의 경험과 실제 현장에 대한 실증적 분석으로 현상학적 진리, 곧 절대적 규범으로서의 진리는 아니지만 인간의 심리역동과 삶에 관한 상황적, 실존적 원리에 대해 많은 지식을 제공해 준다.⁴⁾ 성경적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이 지식들을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인간 이해와 치유에 큰 유익을 준다. 따라서 심리학에 대한 전통적 성경적 상담의 다소 극단적인 태도는 당시의 문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 심리학이 현상학적 진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공헌점까지 부인하는 것은 과학적 환원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또 다른 환원주의의 오류일 것이다. 이런 경향에 대해 Garrett Higbee(2015)는 “함께 아니면 결별(Either you are with us or you are not)”하는 “모 아니면 도(All-or-nothing)”의 입장이라 평가하며 “왜곡

4) John Frame(1987)에 의하면, 인간과 현실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상황적(situational), 실존적(existential), 규범적(normative)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Frame은 “perspectivalism”이라고 지칭한다.

된 이분법(a false dichotomy)”이라 지적한다. 아쉽게도 오늘날 Adams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며 기독교 상담의 진리를 함께 발전시켜가기 보다 Institute for Nouthetic Studies라는 기관을 설립해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 접근은 “성경적으로” 상담한다기보다 오직 성경 “만으로” 상담한다는 일부 극단적인 분파를 야기하여 성경적 상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늘날 성경적 상담은 전통적 성경적 상담을 넘어서는 흐름이다. Adams가 CCEF를 떠난 이후, 성경적 상담은 새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를 진보적 성경적 상담(Progressive Biblical Counseling)이라 부른다.⁵⁾ 전통적 성경적 상담은 방법론에 있어서 행동(doing) 변화를 강조하고 정신병리에 대해서는 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들의 주된 연구 주제는 권면적 상담의 정당성을 변증하고, 인본주의 심리학, 더 나아가 통합적 접근에 대한 비판이었다(Johnson, 2012a). 그 결과 전통적 성경적 상담은 다른 관점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이 되었고, 복음주의 내에서도 다소 고립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진보된 성경적 상담은 다른 복음주의 상담학자들과 건설적 대화를 시도하고, 죄와 타락 교리를 포기하지 않는 동시에 고통의 신학을 함께 고려하며, 상담관계의 중요성과 역할 또한 강조한다. Heath Lambert는 이런 성경적 상담의 발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5) 진보적 성경적 상담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학자들은 Bob Kellemen, David Powlison, Edward Welch, Elys Fitzpatric, Jeremy Pierre, Winston Smith 등이 있다. 그러나 전통적 성경적 상담과 진보적 성경적 상담의 구분이 독자적인 두 행보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진보적 성경적 상담은 전통적 성경적 상담을 뿌리로 발전되었다. 이런 발전은 정황의 변화에 따라 성경 계시에 보다 충실한 방향을 추구함이지 전통을 거부하는 반정립이 아니다. 따라서 전통적 성경적 상담과 진보적 성경적 상담은 그 외연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는 복음화 사역으로서 성경적 상담의 본질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에 있다.

Adams로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며 변화하고 성장했다. 우선 2세대가 성경적 관점에서 죄와 고통의 의미를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지, 어떻게 마음의 동기 문제를 생각할 것인지, 행동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언급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주의 깊게 숙고함으로써 개념이 진보되었다. 성경적 상담자들이 성경을 통한 인간관계의 접근에 있어서 더 잘 돌보고, 친절하며, 덜 형식적이고 덜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방법론적인 개발도 이루어졌다. 또한 실패를 통해서 배워가는 2세대의 변증론적 발전이 있었으며, 외부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1세대의 성공적인 접근 방법을 계승하고 또 강화했다 (Lambert, 2015: 254).

오늘날 성경적 상담은 Lambert가 분류한 2세대를 거쳐, 그 후학들이 3세대에 이르렀다. 현재 학문과 실천의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2, 3세대는 현대 심리학을 성경적 관점에서 비평적으로 활용하면서 성경적인 동시에 보다 적실성 있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 형상에 대한 기독교 신학을 토대로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의 자료와 신경생물학, 인지과학, 사회적 문맥까지 함께 고려하며 우울, 수치, 불안, 분노, 중독, 자폐, 트라우마 등 다양한 현상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인적인 성경적 상담의 이론과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e.g., Badgett, 2018; Fitzpatric, 1999, 2001; Hendrickson, 2009; Kim, 2016; Lambert, 2013; Lame & Tripp, 2009; Powlison, 2016; Welch, 2015, 2016).

이렇게 성경적 상담은 신학과 상담의 전문성을 가진 양질의 성경적 상담학자들을 배출하고 있고, 그 영향력을 확장해 가고 있다. 그 흐름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남침례교단의 성경적 상담에 대한 헌신이다. 북미 최대의 미국 복음주의 교단인 남침례교단(Southern Baptist Convention)은 2002년 총회에서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the Authority of the Word of God)와 성경의 충분성(the Sufficiency of Scripture)을 의

존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후 산하 신학교들은 남침례신학교(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을 시작으로 성경적 상담 석박사(MA/Ph.D) 학위를 주고 있다. 이 흐름에 따라 최근 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Capital Bible Seminary, Dallas Theological Seminary,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Purita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등에서도 성경적 상담 학위 과정을 개설하여 가르치고 있다.

성경적 상담 운동은 더 나아가 지역교회로까지 확장되고 있다(김준, 2016). Powlison(2013, 2015)은 성경적 상담이 학교나 기관에서 교육될 지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며 성경적 상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활동이 실연되는 장은 교회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모든 지역교회에게 세속적 상담과 다른 성경적 방법으로 공동체의 영혼들을 상담해야 할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강조한다. 남침례신학교의 총장 Albert Mohler Jr.(2014: 10)는 성경적 상담에 대한 지역교회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일치하는 방식 가운데 풍성한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상담하도록 부름 받았다. 이 상담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권위와 능력, 진리로 세워진 지역교회가 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인침 받은 성도의 공동체가 성경적 상담의 중심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상담은 전문적인 기관을 넘어 지역교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형태의 상담이고, 지역교회 공동체 자체가 복음 안에서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성경적 상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지역교회 목회자들은 초기에는 목회 현장 가운데 심리학 중심의 상담 실천을 적용해 보려고 관심을 두었지만, 그 한계와 세계관의 차이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며 성경적 상담의 목양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신념들을 토대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적 상담을 실천하고

있다.⁶⁾

더 고무적인 것은 이들의 네트워크 연합이다. 오늘날 다양한 성경적 상담학자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천을 개발하고, 그것을 다양한 배경의 전문 상담자, 정신과의사, 임상심리사, 지역교회와 센터 등과 소통하면서 거대한 네트워크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Christian Counseling and Education Foundation (CCEF)⁷⁾, Association of Certificated Biblical Counselors (ACBC)⁸⁾, 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ors (AACC), Association of Biblical Counselors (ABC),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iblical Counselors (IABC) 등의 기관은 그리스도 복음을 기초로 다양한 상담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고, 매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성경적 상담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2010년 시작된 Biblical Counseling Coalition (BCC)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영국, 독일 등 성경적 상담 운동을 개진하고 있는 세계의 다양한 기관들을 연합하여 성경적 상담 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세계화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성경적 상담은 복미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다양한 문맥과 문화 가운데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성경적 상담

-
- 6) 성경적 상담을 사역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교회의 예를 들어보면, University Reformed Church, Harvest Bible Chapel, Grace Community Church, Mars Hill Church, Faith Baptist Church, Capital Hill Baptist Church, Sojourn Church 등이 있다. 지역교회의 성경적 상담 운동의 참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준(2016). 미국 복음주의 내 성경적 상담의 확장과 신칼빈주의. *복음과 상담*, 24(1), 45-72.
- 7) CCEF는 Adams를 중심으로 1968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지난 5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해왔다. 따라서 오늘날 CCEF는 전통적 접근을 넘어 진보적 성경적 상담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하다. 참고, Welch, E. T. (2018) 50 years: how CCEF has grown and seeks to keep growing.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32(2), 83-97.
- 8) ACBC는 과거에 CCEF와도 소통하였으나, 최근 ACBC의 리더십들은 다른 기관과의 소통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는 성경적 상담 운동이 남침례교단 지역교회로 확장되면서 목회자 중심의 리더십이 형성되는 가운데 타 기관과 차별화하려는 보수적인 흐름으로 보인다.

의 새 물결은 한국 기독교에도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성경적 상담 운동은 어떤 시점에 있으며,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2. 한국 성경적 상담 운동의 현재와 과제

현재 한국의 성경적 상담 운동은 다양한 사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시작된 사역은 북미나 해외의 저명한 성경적 혹은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자의 저서를 번역하고 소개하는 것이었다.⁹⁾ Jay E. Adams의 “목회상담학(Competent to Counsel, 1997)” 번역을 시작으로 그의 다른 작품들은 물론, David Powlison의 “성경적 관점으로 본 상담과 사람(Seeing with New Eyes, 2009),” “정신의학과 기독교(Competent to Counsel? The History of A Conservative Protestant Anti-Psychiatry Movement, 2014),” Paul D. Tripp의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 2007)”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Age of Opportunity, 2004),”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War of Words, 2001),” Edward T. Welch의 “뇌 책임인가 내 책임인가(Blame in on the Brain, 2003),” “큰 하나님 작은 하나님(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2012),” “중독의 성경적 이해(Addictions: A Banquet in the Grave, 2013),” “하나님 대체 어디계세요: 우울증(Depression, 2015),” “수치심 성경적 내적치유: 당신을 힘들게 하는 마음의 상처로부터의 회복(Shamed Interrupted),” Elys Fitzpatric의 “두려움 깨뜨리기: 당신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의 평안과 바꾸라(Overcoming Fear, Worry, and Anxiety: Idols of the Heart, 2010),” Heath Lambert의 “성경적 상담

9) 전형준(2012)은 Jay E. Adams의 *Competent to Counsel*이 1997년 번역되면서부터 한국 성경적 상담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한다.

의 핵심 개념(*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fter Adams, 2015*)” 등 다양한 성경적 상담 작품들이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학위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학자들이 복음주의 학교와 기관을 중심으로 한국 현장과 정서에 맞는 상담 방법론을 연구하며 가르치고, 상담자 자격 교육, 임상 훈련 및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00년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Korea Evangelical Counseling Society)가 복음주의신학회(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의 분과학회로 독립하여 고신대학교, 광신대학교, 백석대학교, 성결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등 복음주의 학교들을 중심으로 성경에 기초한 상담 이론과 실천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 성경적상담학회(회장: 정정숙), 성경적상담연구원(원장: 황규명), 성경적상담학회(회장: 전형준) 등의 기관도 성경적 상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¹⁰⁾ 위의 기관들은 <복음과 상담>, <성경과 상담> 등의 학회지를 발간하고 분기별 학술대회를 통해 성경적 상담의 학문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통해 임상 수련을 제공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며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상담자 양성에 헌신하고 있다. 또한 성경적 상담 국제 컨퍼런스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성경적 상담 운동의 비전 공유에도 힘쓰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성경적 상담 운동은 지역교회와 전문기관과의 연계에는 다소 한계를 보인다. 현재 북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경적 상담의 부흥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젊은 세대들 가운데 강조되는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김준, 2016). 즉, 성경적 상담의 부흥은 학교와 학회를 넘어서 교회 지도자들

10) 언급한 학회 이외에도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목회상담협회 등의 기관은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하며 심리와 상담을 연구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학회이다. 이 연구는 성경적 상담 운동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상담 운동에 보다 적극적인 학회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과 성도들, 다음 세대의 지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얻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성경적 상담은 아직 지역교회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상담실 가운데 기독교 신학적 배경이 없는 심리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또한 지역교회 목회자와 핵심 리더들이 다수 참여하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북미 컨퍼런스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성경적 상담 관련 컨퍼런스나 세미나는 복음주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주된 참여자들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아직까지 한국의 성경적 상담 운동은 그 가치와 영향력을 지역교회와 공공기관까지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성경적 상담 운동의 현 시점은 지역사회와 연합을 기대하며 성경적 상담의 가치를 지역교회와 공공사회로 이식시켜야 할 시기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정리해보면,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성경적 상담 운동은 1세대 학자들이 성경적 상담의 개념과 가치, 원리를 소개하는 파종(播種)기를 거쳐, 1, 2세대 학자들과 실천가들이 복음주의 학교와 기관 중심의 모판에 싹을 틔우는 육묘(育苗)기를 지났다. 그리고 이제는 1, 2, 3세대가 함께 지역교회와 공공사회의 토양에 옮겨심기를 준비해야 할 이식(移植)기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건강한 옮겨심기를 위한 성경적 상담 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 그 과제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1) 전문성을 갖춘 성경적 상담자 양성 교육

성경적 상담 운동은 전문성 있는 성경적 상담자를 세우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바른 가치와 실천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성경적 상담 운동은 신학적 전문성, 기독교 심리학적 전문성, 실천적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① 신학적 전문성 교육

성경적 상담은 바른 신학에 기초한다. 성경의 내러티브나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심리학 이론을 설명하는 방식의 인간 이해와 그에 기초한 상담은 “심리적 이단(Psycho-Heresy)”이라고 불릴 만큼 위험한 형태의 통합이다(Bobgan, 1987). 본인의 신앙과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 왜곡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경적 상담자는 신학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BBC의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적 상담은 바른 신학(Sound Theology)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적 상담이 본질적으로 실천신학 분야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영역은 결국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지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돌보기 원하신다. 지혜로운 상담은 삶의 신학적 체계-사고방식, 세계관-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인간과 삶의 문제들, 해결책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준다(BCC, 2018: 3).

하나님이 누구신지(신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질을 무엇인지(인간론), 그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구원론),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며 그분의 인격과 사역은 무엇인지(기독론), 성령은 누구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어떠한지(성령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무엇이며 어떤 역동이 있는지(교회론), 인간의 마지막은 어떠한지(종말론) 등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이해는 인본주의 상담과 구별된 성경적 상담의 세계관을 제공해준다. 이는 성경적 상담의 목적과 방향, 정체성을 확립하고 계승하기 위한 필수적 작업이다. 따라서 성경적 상담 커리큘럼에는 체계적인 신학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

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가 성경적 상담자 양육을 위해 목회학 석사(M.div) 과정과 연계하여 학위 과정을 진행하는 것과 상담학 석사(MAC)과정의 커리큘럼에 성경해석학, 성경신학, 개혁신학, 변증학, 역사신학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 상담의 신학적 정체성을 견고히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의 성경적 상담학 석사(MABC)과정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은 물론 개인 영적훈련, 개인 복음전도, 선교학 등 개인 경건 및 복음화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신학이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과 사회의 실천적 현장 가운데 생명력을 나타내게 하는 건설적인 교육 방향으로 여겨진다. 이런 예들은 한국의 성경적 상담 교육이 바른 신학의 토대 위에 성경적 상담의 기초를 세워나가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들이다. 사실 상담에 대한 신학적 정립은 한국 성경적 상담 운동 초기부터 강조되어 온 중요한 문제이다(안경승, 2012; 전형준, 2012; 정정숙, 2002; 황규명, 2008).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다음 세대들에게 남아 있는 필수 과제이다.

② 기독교 심리학적 전문성 교육

건강한 성경적 상담은 기독교 심리학적 전문성을 요구한다. 기독교 심리학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을 가장 온전한 지식으로, 그의 말씀인 성경 계시의 권위를 최우선 권위로 믿는다.¹¹⁾ 기독교 심리학은 성경의 계시가 인간과 세상, 현실을 이해하는 첫 번째 원리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독교 신학의 전통을 존중하고, 철학적, 경험적, 실증적 지식들을 창

11) 본고에서 사용하는 기독교 심리학의 개념은 한 학파를 언급하기보다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인간 이해와 적용으로서의 심리학을 의미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한다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섭리, 구원드라마와 분리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심리학은 인류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고, 이는 “성경적으로 심리학 하기(Doing psychology Biblically)”와 분리되지 않는다.

조은혜의 관점에서 비평적으로 읽고 또한 건설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의도하신대로의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학문이다 (Johnson, 2012a, 2017). 기독교 심리학의 관점에서 참된 심리학은 이미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은 성경과 기독교 전통 안에서 오랫동안 펼쳐져왔다. 따라서 기독교 심리학의 제일자료는 성경이며, 신학적 자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주요자료가 되고, 다양한 현상학적, 실증적 자료들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의미 있는 참고문헌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기독교 심리학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신적 관점(Divine Perspective)을 제공함으로써 인본주의 심리학을 대체하는 “성경적 심리학하기(Doing Psychology Biblically)”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기독교 심리학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리고 원형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모든 인간 삶의 역동에 대한 총체적인 사고 체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¹²⁾ 이는 현대 심리학이 수용했던 지식의 폭보다 넓고 보다 진리에 가까운 심리학 체계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이 체계는 현대 심리학과 신학을 다룸에 있어서 극단적인 폐쇄성 혹은 무분별한 통합의 오류를 극복하고 보다 성경적이며 전인적인 상담 방법론의 기초가 될 것이다.

③ 상담 실천의 전문성 교육

성경적 상담 운동은 이론을 넘어 전문적인 실천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성경적 상담 운동의 과제 중 하나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성경적 상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자를 교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경적 상담 교육은 기본적인 공감 훈련, 성경적 상담 기법의 다양한 문맥

12) 현대 심리학은 오랫동안 자연철학(naturalism)의 지배를 받아 실증적으로 논의될 수 없는 초자연적, 신앙적인 것을 공공의 논의에서 배제했다(Johnson, 2012a; Taylor, 2007). 그 결과 현대 심리학은 하나님의 존재, 섭리, 역사 등을 인간의 삶에서 배제한다. 이는 과학적 환원주의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기독교 심리학은 이런 환원주의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접근이 된다.

에 대한 적용, 심리검사의 성경적 활용 및 분석 방법, 집단상담의 체형 및 인도, 성경적 사례개념화, 매체를 활용한 성경적 상담 적용 등 현장성 있는 상담 실습을 제공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성경적 슈퍼비전 안에서 실천되어야 하며, 슈퍼비전의 내용에는 치료 관계의 핵심이 되는 상담자의 인격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및 윤리 교육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¹³⁾

위에서 언급한 전문성 교육은 양질의 성경적 상담자 양육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전문성 교육에 대한 강조가 성경적 상담의 엘리트주의를 표방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적 상담의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적 상담자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 복음화 사역을 이루신다. 성경적 상담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도구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 뜻을 내담자에게 흘러 보내는 도구이다.¹⁴⁾ 따라서 성경적 상담자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도구에 대한 준비보다 자기를 비워내고 그 빈 자리에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이 가능할 때, 인간 상담자가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상담 현장 가운데 나타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담자가 비록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기를 비워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담자를 품고 내담자를 향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의지를 충만하게 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들어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믿음이 도저히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의 전문상담을 하나님의 온전한 전문상담으로 변화시키는 참

13) Kim(2016)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 닮음(Christiformity)이 성경적/기독교 상담 실천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삶의 양식은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닮음은 성경적 상담의 목표이자 방법이며, 또한 성경적 상담자의 윤리이다.

14) Paul Tripp(2007)은 기독교 상담은 본질적으로 성육신적 사역이라 한다.

된 전문성이다. 이는 마치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과 같다(딤후2:21). 이런 맥락에서 인간 된 성경적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헌신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분께 비록 부족하지만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려는 신앙고백이다.

2) 성경적 상담 실천을 뒷받침하는 이론 연구

건강한 실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이론적 바탕이 있어야 한다. CCEF와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그리고 남침례신학교가 북미 성경적 상담 운동의 부흥에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향력 있는 이론들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성경적 상담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적 상담 실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독교 심리학적 이론과 실천신학적 이론이 발전되어야 한다.

① 기독교 심리학적 연구

현대 상담의 영역에서 지배적인 사상적 기초가 되어왔던 인본주의 심리학을 성경적 관점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독교 심리학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 대한 기독교 심리학 연구가 요구된다. Johnson(2012a)은 기독교 심리학 문헌 작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담을 실천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동의 프로젝트라고 강조한다. 하나님 영광의 내면화와 외적 구현으로서 그리스도 닮아가기(Johnson, 2012), 은혜 경험에 대한 척도(Bassett, Felinski, et al., 2012; Blackburn, Sisemore, Smith, & Re, 2012), 기독교 신앙과 자기연민, 우울, 죄에 대한 신념, 내적 종교성의 상관관계 연구(Watson, Chen, & Sizemore, 2011), 청소년 불안에 대한 말씀기도 연구(오윤선, 2011), 예수의 비유를 활용한 기독교 상담 방법론 연구(안경승, 2019), 그리스도 닮음을 통한 트라우마 치유(김규보, 2019),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통한 상담 기법 연구(김

준, 2019) 등이 관련된 예일 것이다.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할 기독교 심리학 연구의 범주는 첫째,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기독교 관점의 사회과학적 연구이다. 오늘날 사회과학적 연구는 관찰되는 사회현상을 개념화하고,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을 제기하고, 그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수정하고, 수정된 이론을 근거로 다시 현상을 관찰하여 이론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거친다(Song, Kim, Bhattacharjee, 2014). 이 연구방법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객관적인 양적, 질적 연구 설계를 요구하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측정하여 실증적인 지식체계를 쌓아간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보다 엄밀한 의미로는 상호주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식으로 인정된다.¹⁵⁾ 따라서 기독교 문맥에서 접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은 이론적 측면과 실증적 측면에서 성경적 상담의 내연을 단단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학문과 소통하는 지식적 통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성경적 상담의 외연을 확장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둘째, 기독교 심리학 연구는 “성경적으로 심리학하기”를 위한 연구방법론 개발에 힘을 필요가 있다. 오늘날 사용되는 사회과학적 방법으로서 양적, 질적 조사는 많은 외생변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이론과 인과관계를 검증하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측정한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채서일, 김주영, 2014). 다시 말하면,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은 절대적인 규칙이 아닌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확률적 규칙성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15) 현대 과학적 지식은 최대한의 객관성을 추구하지만, 다양한 변수와 현실적인 한계에 의해 절대적인 객관성을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객관성은 오류의 가능성을 전제 하되, 충분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상호주관성의 원리로 이해함이 타당해 보인다(채서일, 김주영, 2016).

는 사실을 내포한다. 따라서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한 기독교 심리학 연구는 창조 질서에 대해 유의미한 추론과 잠정적 진실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처럼 참된 진리를 제공하기에는 다소 물의가 있다. 이 한계를 고려한다면, 향후 기독교 심리학 연구는 성경의 계시에 의존하는 동시에 사회과학 연구방법의 장점은 살리고 한계는 극복하는 기독교 심리학적 연구방법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② 실천신학적 연구

이미 언급했듯이, 성경적 상담은 실천신학의 한 분야이다. Vanhoozer (2018)의 주장처럼, 하나님 드라마가 인간 삶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실천적 이성이 필요하다. 성경적 상담이 실천적 이성을 담지한 실천신학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발화행위(illocution)가 인간의 삶 속에서 발화효과(perlocution)를 야기하기 때문이다(Johnson, 2012a; Vanhoozer, 1998).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Loquentis Dei*)은 당신의 말씀이 인간의 삶과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구현되는 창조 질서를 만드셨다. 이는 성경 계시를 통해서 전달된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 계시를 통해 성취되기 원하시는 의도를 갖고 계신데, 이를 신적 발화효과 의도(divine illocutionary)라 한다(Johnson, 2012a).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인간의 삶은 발화된 그 말씀의 의도를 믿음으로 구현해야 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 의도가 항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타락한 의지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발화효과적 의도와 무관한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인류의 죄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를 왜곡된 발화효과적 영향이라 부를 수 있다. 타락 이후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적 발화 의도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믿음의 실천을 통해 그것은 성도의 인격과 삶, 교회와 사회 가운데 바람직한 발화효과를 나타낸다. 성경적 상담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지 못하고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려 고통 받고 있는 내담자에게 그 말씀이 다시 들리게 하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그리고 실천신학은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발화행동과 발화효과 의도를 탐구하고, 바람직한 발화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성경적 상담 실천을 돕는다. 따라서 성경적 상담 연구는 내담자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부부갈등, 이혼, 우울, 분노, 성폭력, 가정폭력, 트라우마, 장애, 정신질환, LGBT 등) 가운데 하나님의 발화행위와 발화효과의 관계와 역동에 대한 실천신학적 연구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발화행위의 효과가 한국 교회의 현장 가운데 어떤 영적 자원을 형성해왔는지 탐색하고 이를 성경적 상담 실천에 적용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적 상담자는 궁극적으로 실천신학자이다.

3)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성경적 상담 방법 및 도구의 개발

현대 상담은 객관적인 진단 및 치료 도구들을 제시한다. 이는 성경적 상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성경적 상담 운동이 급변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실제적인 상담 도구들을 제시할 수 있다면, 성경적 상담의 신뢰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도구들을 활용한 자료들은 성경적 상담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적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① 기독교 병리학적 진단체계 및 도구의 개발

정신의학이나 임상 심리의 현장에서는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에서 발표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 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 DSM-5) 혹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제시한 국제질병분류법(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11) 등을 통해

이상 심리에 대한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 웨슬러 지능검사,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로르샤흐 검사, 주제통각검사, 집-나무-사람 검사, 문장완성검사, 밴더-게슈탈트 검사)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내담자의 이해와 치유에 도움을 얻고 있다. 이런 도구들은 성경적 상담의 실천에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시도로서 김준수(2006)는 성경을 기초로 왜곡된 정체성 공식과 성경적인 정체성 공식을 제시해 타락한 인간 마음의 본질적 문제를 진단하고자 했다.¹⁶⁾ 안경승(2007)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성과 정상성의 기준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Fitchett이나 Pruyser 진단 모델의 활용, 인간 병리와 죄의 심각성 인식의 필요성, 문제의 원인 진단과 치유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강조했다. 또한 김규보(2017)는 인간 문제를 진단함에 있어서 죄, 장애 및 질병, 고통의 범주를 고려해야 할 것을 주장하며, 각 범주의 하위체계를 제시함으로써 기독교 병리학에 대한 기초 작업을 시도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성경적 상담 운동은 상담자들이 공유하여 사용할만한 성경적 진단체계나 도구를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성경적 상담운동이 실천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합의된 진단 체계와 검사 도구들에 대한 제안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술, 음악, 드라마, 놀이 등의 매체를 활용한 성경적 상담 방법 및 도구의 개발도 지속적으로 연구 및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다.

② 성경적 상담구조화의 개발

전문적인 성경적 상담이 비전문적인 돌봄과 차별화 되는 요인 중 하나는 구조화의 여부이다. 상담구조화란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 전반에

16) 김준수(2006)에 의하면, 왜곡된 정체성 공식은 “나의 가치=나의 업적+타인의 평가”인 반면, 성경적인 정체성 공식은 “나의 가치=그리스도의 업적+하나님의 평가”이다. 그는 가정과 사회에서 경험된 왜곡된 정체성을 성경적 정체성으로 회복시켜 신앙의 성숙을 통한 마음의 치유 과정을 제안한다.

대해 합의된 의견을 중심으로 상담 실천의 조직적 체계를 세우는 과정이다(김계현, 1995; 김인규, 2004). 상담의 구조화는 상담 환경의 구조화, 상담 관계의 구조화, 상담 과정의 구조화, 상담 방법의 구조화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상담 환경의 구조화는 상담 시간, 장소, 비용, 회기, 예약 변경 등과 관련한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사전 상담이나 상담 초기에 이루어진다. 상담 관계의 구조화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건강한 치료동맹을 맺고, 상담 관계의 윤리적 측면이나 성공적인 상담을 위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 내담자의 권리, 비밀보장의 원칙과 예외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 과정이다. 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정서적 안정을 고취하고 상담효과에 대한 소망을 촉구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이런 상담 관계의 구조화는 상담초기부터 시작해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조정되어야 한다. 상담 과정의 구조화는 상담의 현실적인 목표를 내담자와 상담자 함께 설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계 혹은 다루어야 할 영역들, 상담 진행 과정에서 활용하는 도구, 상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해 구조화하는 것이다. 상담 방법의 구조화는 내담자와 상담의 방향에 대해 공유하기 이전에 내담자의 문제와 상황에 따라 어떤 이론과 도구들을 사용하여 치료적 개입을 할 것인지 상담 전략 체계를 세우는 작업이다. 상담 방법의 구조화는 내담자에게 가장 적절한 개입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데, 이는 상담자에게 익숙한 상담 이론과 기법에 다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슈퍼바이저와 논의하여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구조화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상담을 구조화 시키는 것은 내담자의 출석률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할 뿐 아니라 상담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하고, 상담 과정에서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인규, 2004; Day & Sparacio,

1980; Rhodes & Spencer, 2010). 또한 상담구조화는 상담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상담관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청이나 실천에 대해 안정적인 경계를 세울 수 있다(Zur, 2007). 이런 유익들을 고려해 볼 때, 상담전문가는 가급적 구조화된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규명(2008)은 Paul Tripp이 제시한 Love-Know-Speak-Do의 주요 상담 요소를 토대로 관계형성과 격려, 자료수집과 분석, 성경적 직면, 변화를 위한 지원의 방법을 각 범주별로 구체화하여 구조적인 성경적 상담 방법을 개관했다. 김준(2018)은 마음에 대한 성경적 분석을 통해 내담자의 동기, 사고, 감정, 행동, 결과를 탐색하는 구조화된 성경적 인지 치료 전략을 제안했다. 김미경(2015)는 노년기 자살위험군을 대상으로 기독교 이야기 치료의 구조적 방법을 제시했다. 그것은 문제로 가득 찬 이야기를 대안적 이야기로 재구성하기, 의미 되찾기, 이야기 재저작을 통한 무너진 자존감의 회복, 적극적인 종교 활동을 통해 인간의 내러티브와 하나님의 내러티브 연결, 교회 공동체로 회원재구성, 이야기치료 반영팀을 통한 협력적인 관계 형성이다. 김규보(2019)는 트라우마를 구원드라마 관점에서 접근하여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구조로 내담자의 본질과 문제 역동을 이해하고, 구원드라마 안에서의 삶의 양식으로 그리스도 닮음을 제시하며, 트라우마 가운데 경험되는 그리스도 닮음의 치료적 요소들을 구조화하여 상담에 적용했다. 이런 예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구조적인 상담을 실천하기 위한 시도들이다. 이런 흐름을 따라 다양한 삶의 문제와 접근에 대한 성경적 상담구조화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조화된 상담이 고착화되는 것에 대한 위험성도 숙지해야 한다. 구조에 얽매게 되면 현장성과 개별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담자의 기질과 성격, 경험, 내적역동 및 외부환경은 각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 이론에 기초한 상담구조화로 모든 내담자들을

다룬다면 그것은 폭력적인 실천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의 구조화는 큰 유익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상담자는 지혜롭게 구조를 수정하거나 때로는 구조적 틀을 벗어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구조화된 인지치료적 접근을 활용할 때, 내담자의 인지 수준이 내면의 깊은 핵심신념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구조화되어 있는 틀을 벗어나 정서 중심이나 행동 중심으로 전략을 재구성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구조화된 다양한 상담 방법들을 내담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배열하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상위 시스템의 구조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성경의 세계관은 그 상위 시스템의 구조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 창조-타락-구속-완성으로 구성되는 성경의 내러티브가 모든 사람의 내러티브를 포괄하는 메타내러티브(Metanarrative)가 되는 것처럼, 인간의 다양한 질서를 다루는 각 상담 시스템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상담의 메타시스템”을 구성하여 “유연한 구조적 상담”의 전략적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즉, 인지, 정서, 의지, 행동, 가족체계, 공동체, 사회문화 등을 다루는 다양한 상담 구조들이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상위의 목적 아래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담의 메타시스템은 유연할 수는 있지만,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모든 내러티브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러티브가 아닌 것처럼, 이 시스템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적 상담의 원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경적 상담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실제적인 동시에 성경적인 상담구조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는 여전히 남겨진 과제이다.

③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성경적 상담의 준비

“4차 산업(Industrie 4.0)”이란 용어는 2011년 독일 하노버 박람회(Hannover fair)에서 글로벌 가치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을

언급하는 용어로 소개되었고,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2016년 Davos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의제로 삼으면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에게 확산되었다(Schwab, 2016).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빅 데이터 분석, 딥 러닝, 사물인터넷 등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험하지 못한 혁명적 기술로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를 융합하여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Schwab, 2016).

이 변화는 다양한 유익을 주는 동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SNS 우울증, 사이버고독, 가상현실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겪게 되는 인지 왜곡 및 정신 질환, 대인관계 능력의 보편적 저하 및 공동체성의 파괴, 디지털폭력 및 사이버범죄의 증가, 현실자아와 가상자아의 분열, 현실 대체 세상으로 인한 소외와 단절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이 예상된다(김규보, 2018; 송봉규, 2019; 이상윤, 윤홍주, & 서원찬, 2019; 전요섭 2018; LaMothe, 2014; Messias, 2011). 이런 문제들에 대해 경고하며 전요섭(2018)은 새로운 기술혁명은 “인간소외의 사차(死次) 산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중심의 4차 산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¹⁷⁾ 즉,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안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중심의 원칙은 기술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인간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표현은 다소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인간중심의 4차 산업은 인본주의 심리학의 오류를 답습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중심의 4차 산업혁명은 인본주의 심리학이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 역사를 배제한 이론을

17) 전요섭(2018)은 인간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보다 인간소외의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대안으로 영성지향적 상담을 제안한다.

개진하여 환원주의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간 기술의 향연에 그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모든 창조세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임을 나타낸다(Edwards, 2014; Piper, 2003). 그렇다면 4차 혁명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인간 중심이 되기보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상담 방법 및 도구의 개발은 성경적 상담 운동이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반응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이미 현대 사회는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딥 러닝 등의 기술을 통한 컴퓨터 기반 심리치료(Computer-based psychotherapy/Computer-aided psychotherapy)를 발전시키고 있다. 인간 상담자 보다 더 지식이 많고, 더 세밀하고, 더 정확하고, 빠르게 추론할 줄 아는 인공지능 상담 매체는 불안, 강박, 정동 장애 등 다양한 심리적 병리에 대해 효과적인 위로와 공감, 격려를 제공하고 있다(Ahern, & Locke, 2010; Cartreine, Jacob & Storch, 2015; Heilman, Kallay, & Miclea, 2010). 또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한 공포증, 스트레스 관련 장애, 우울장애, 섭식장애 등의 치료도 진행 중이다(Maples-Keller et al., 2017; Ventura, Baños, & Botella, 2018).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상담 현장에 새로운 개척지를 창출하고 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성경적 상담운동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성경적 상담 운동은 4차 혁명 기술을 경계하고 배격하기보다 그 기술을 창조 은혜 안에서 성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도구의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4)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성경적 상담 운동의 확산

성경적 상담은 개인 구원을 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화 사역이다. 따

라서 성경적 상담 운동은 개인과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장되어야 한다. 지역교회와 전문상담기관, 사회복지기관 등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성경적 영혼 돌봄의 공적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면, 성경적 상담 운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건강한 사회 개혁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지역교회 및 전문기관과 연대

이미 살펴보았듯이 성경적 상담의 주된 실천의 장은 교회이다(Mohler Jr., 2014; Powlison, 2015). 교회가 성경적 상담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상담의 목적과 가치, 방법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컨퍼런스와 세미나는 이를 위한 효과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 학회나 학교를 중심으로 시대의 흐름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교회 지도자들과 성경적 상담 운동의 비전과 실재를 공유하는 것은 지역교회 지도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성경적 상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또한 SNS, YouTube 등을 활용하는 것도 성경적 상담 운동의 저변 확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SNS, YouTube 등의 디지털 도구를 통해 물리적 장벽을 넘어 다양한 사회문화와 교류하고 있다(윤명희, 2016). 이런 현실 가운데 물리적 장벽을 뛰어 넘는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 성경적 상담의 목적과 원리, 성경적 상담의 실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간 성경적 상담을 실천해보는 것은 다양한 문맥 속에 있는 관심자들의 참여를 촉구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이벤트성의 컨퍼런스와 세미나, 인터넷상의 교류는 효과에 한계를 보일 것이다. 성경적 상담의 비전을 받아도 그것을 실행하거나 교육할만한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성경적 상담 운동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지역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성경적 영혼 돌봄 프로그램이나 평신도 성경적 상담 사역자

를 세울 수 있는 사역팀을 파송하는 등 실제로 성경적 상담이 지역 교회에 뿌리내려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 학교와 기관에서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에서 다룰 수 없는 전문영역인 경우, 전문 성경적 상담기관과 연결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결망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② 공적 기능을 통한 지역사회와 소통

성경적 상담은 개인적인 실천이 아니다. 물론 상담의 특성 상 성경적 상담의 실천은 주로 내담자 개인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상담은 공적인 사역이다. 복음 자체가 공적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Vanhoozer는 복음의 공공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그저 신자 개개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극단적으로 축약하는 태도요 심지어 복음을 왜곡하는 처사다. 좋은 소식은 단지 각각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 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를 세우셨고(벧전2:9, 출 19:6, 계 1:6 참조)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화해시켜 사회적인 평화를 확립하셨다(엡:214)는 사실이다. (Vanhoozer, 2018: 29)

마찬가지로 복음화 사역인 성경적 상담을 사적인 사역으로 국한하는 것은 복음의 크기를 왜곡하는 것이다. 상담 현장에 내담자가 들고 오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내담자의 문제는 언제나 그가 속한 사회문화적 정황을 드러낸다. 성경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개인적인 문제는 사회문화적 죄 혹은 사회문화적 장애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¹⁸⁾ 따

18)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왜곡을 살펴보는 것은 상담 실천이 공적인 기능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규보(2017)는 사회문화적 죄와

라서 내담자의 전인적인 회복과 성장은 심리내적 영역을 넘어 사회문화적인 개혁과 함께 이루어 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성경적 상담의 실천 안에서 내담자는 공동체와 거시사회를 진단하는 통로가 되고, 그 가운데 발견되는 사회문화적 죄와 장애에 대해 상담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의지를 분별하여 그것을 공동체와 사회문화 가운데 구현하도록 목소리를 내야하는 선지자적 책임이 있다. 그 과정 가운데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성경적인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실증할 것이다. 결국 성경적 상담 운동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양한 삶의 영역 가운데 창조함으로써 복음 안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그 사회의 역동과 문화를 변혁하는 공적 사역(Public ministry)이다. 따라서 앞으로 성경적 상담 운동은 공적 기능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니고 사회문화에 대한 진단과 개혁에 필요한 소통의 통로가 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적 장애를 구분한다. 사회문화적 죄가 인종차별, 성차별, 정치적 억압 같이 집단적인 죄 행동을 야기하는 체계라면, 사회문화적 장애는 체계 자체는 분명 죄가 아니지만, 완벽할 수 없는 인간 사회 가운데 필연적으로 어떤 집단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병리적인 사회 현상을 지칭한다. 예를 들면, 시장자유경제체제 자체는 죄의 시스템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등과 같은 계층이 형성되어 그 시스템에 존재하는 자체로 누군가가 고통과 억압을 받는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장애를 지닌 공적 체계이다. 또한 결과중심의 교육 문화는 그 자체가 죄도 아니고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지나친 경쟁에 대한 압박 혹은 도태됨으로 인해 이상 심리 증상이나, 비행 및 범죄에 취약해지는 집단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장애의 요인이 된다. 전적으로 타락한 현실에서 사회문화적 죄와 장애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분은 성경적 상담 치료에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Ⅲ. 닫는 글

지금까지 한국 성경적 상담 운동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또 미래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한국의 성경적 상담 운동은 전통적 성경적 상담이 강조한 성경적 정체성을 중시하고 인본주의 심리학의 한계를 인식하는 동시에 진보된 성경적 상담의 흐름 가운데 보다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상담의 이론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성경적 상담 운동은 복음주의 학교와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지역교회와 공공사회 가운데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확장시켜야 할 단계이다. 이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의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신학적, 기독교 심리학적, 실천적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성경적 상담자 양육, 둘째, 성경적 상담 실천의 기초가 되는 기독교 심리학적, 실천신학적 이론 연구, 셋째, 기독교 병리학적 진단체계 및 검사도구, 성경적 상담구조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상담 기법 등 변화되어 가는 상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성경적 상담 방법 및 도구의 개발, 넷째, 지역교회 및 전문기관과의 연대와 공공 사역을 통한 기독교 상담 운동의 확산이다.

이 과제들은 앞으로 성경적 상담 운동에 동참하게 될 이들에게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사역 범위를 확장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제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가 제안하는 과제는 비전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 전략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과제들이 후속연구와 함께 성실하게 준비되고 시행될 때, 향후 한국의 성경적 상담 운동은 개인적인 치료 효과를 넘어 지역교회와 사회문화에까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실천이 될 것이다. 복음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성경적 상담 운동이 그 하나님의 큰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빌1:6).

【 참고문헌 】

- 김규보 (2017). 트라우마에 대한 현대 심리학적 접근의 평가와 기독교 병리학 적 제안. *성경과 신학*, **81**, 171-205.
- 김규보 (2018). 시물라크르 세대와 “들음” 회복으로서의 종교개혁: 기독교 교 육과 상담의 통합 접근. *성경과 신학*, **85**, 101-34.
- 김규보 (2019).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그리스도 답음의 실천적 함의. *성경과 신학*, **90**, 99-139.
- 김계현 (1995). *카운슬링의 실제*. 서울: 성원사
- 김인규 (2004). 상담구조화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고찰. *아시아교육연구*, **5**(2), 119-36.
- 김준 (2016). 미국 복음주의 내 성경적 상담의 확장과 ‘신칼빈주의.’ *복음과 상담*, **24**(1), 45-72.
- 김준 (2018). 기독교상담과 인지치료: ‘마음’의 성경적 의미 고찰을 통한 성경 적 접근. *복음과 상담*, **26**(2), 59-85
- 김준 (2019) 이야기치료의 재저작 대화: 기독교 상담을 위한 적용 방안. *복음과 상담*, **27**(1), 121-48.
- 김준수 (2006) *마음의 치유*. 서울: 디모데.
- 김미경 (2015).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기독교 상담적 돌봄: 이야기 치료를 중심 으로. *복음과 상담*, **23**(2), 41-68.
- 송봉규 (2019). 제4차 산업혁명기술과 범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테러학회*, **12**(2), 73-98.
- 안경승 (2007) 기독교상담과 병리에 대한 이해, *복음과 상담* **9**, 141-67.
- 안경승 (2012).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복음과 상담*, **19**(2), 188-216.
- 안경승 (2019). 기독교상담 방법론으로서 예수의 비유 고찰. *복음과 상담*, **27**(1), 176-206.
- 오윤선 (2011). 청소년 불안 조절을 위한 말씀묵상기도 효과연구. *복음과 상담*, **17**, 130-52.
- 이상윤, 윤흥주, & 서원찬 (2019). 제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전자정부에 대 한 연구: 사이버범죄와 사이버부패방지 측면에서. *한국전자통신학회*, **14**(1), 11-18.

- 윤명희 (2016). *중독은 없다: 선부른 편견으로 외면해온 디지털 아이들의 일상과 문화*. 서울: 올리시즈.
- 전요섭 (20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대응. *신학과 실천*, 61, 175-203
- 전형준 (2012). 한국교회와 성경적 상담의 이해와 과제. *복음과 상담*, 19(2), 9-46.
- 정정숙 (2002). *기독교 상담학*. 서울: 베다니.
- 채서일, 김주영 (2016). *사회과학조사방법론 4판*. 서울: 비앤엠북스.
- 황규명 (2008).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서울: 바이블리더스.
- Adams, J. E. (1970). *Competent to counsel: Introduction to nouthetic counsel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 Adams, J. E. (1997). 목회상담학(정정숙 역, *Competent to counsel: Introduction to nouthetic counseling*).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원전 1970 출판).
- Adams, J. E. (1972). *Christian living in the home*. Phillipsburg, NJ: P & R.
- Adams, J. E. (1974). *The christian counselor's casebook*. Grand Rapids, MI: Zondervan.
- Adams, J. E. (1975). *Counseling and the sovereignty of god*. PA: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 Adams, J. E. (1979).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 Badgett, J. P. (2018) Child sexual trauma, dissociation, and the soul: a christian psychology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46(3), 199-214.
- Bakan, D. (1965) *Sigmund freud and the jewish mystical tradition*. New York, NY: Schocken Books.
- Bassett, R. L., Falinski, K., Luitich, K., Pahls, K., Suhr, J., Tenore, C., White, A., & Wigle, A. (2012, March). Amazing grace.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Christian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tudies, Washington DC.
- Biblical Counseling Coalition(2018, July). BCC Confessional Statement. Retrived October, 30, 2019, from <https://www.biblicalcounselingcoalition.org/confessionalstatement/>

- Blackburn, A. M., Sisemore, T.A., Smith, R.E., & Re, D. (March, 2012). Hope and Forgiveness as Mediators of Enacted Grace in Christians: A Survey with Implications for Psychotherapy. Presented at Christian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tudies Conference, Washington, DC.
- Bobgan, M. (1987). *PsychoHeresy: the psychological seduction of christianity*. Santa Barbara, CA: EastGate Publishers.
- Cartreine, J. A., Ahern, D. K., & Locke, S. E. (2013). A roadmap to computer based psychotherapy in the united states.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8(3), 80–96.
- Crabb, L. (1977).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Grand Rapid, MI.: Zondervan.
- Day, R. W., & Sparacio, R. T. (1980). Structuring the counseling process.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246–49.
- Edwards, J. (2014) *The end for which god created the world: updated to modern english*. Scott Vally, CA: CreateSpace Publishing.
- Fitzpatric, E. (1999) *Love to eat, hate to eat: breaking the bondage of destructive eating habits*. Eugene, OR: Harvest House Publishers.
- Fitzpatric, E. (2001). *Overcoming Fear, Worry, and Anxiety: Becoming a Woman of Faith and Confidence*. Eugene, OR: Harvest House Publishers.
- Fitzpatric, E. (2010). 두려움 깨뜨리기: 당신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의 평안과 바꾸라(이명숙 역, *Overcoming Fear, Worry, and Anxiety: Becoming a Woman of Faith and Confidence*). 서울:미션월드라이브러리. (원전 2001 출판).
- Frame, F. M. (1987). *The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Phillipsburg, NJ: P & R.
- Freud, S. (1997) Dora: an analysis of a case of hysteria.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Heilman, R., Kallay, E., & Miclea, M. (2010). The role of computer-based psychotherapy in the treatment of anxiety disorders. *Cognition, Brain, Behavior.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XIV(3) 209–230.
- Hendrickson, L. (2009) *Finding your child's way on the autism spectrum*.

- Chicago, IL: Moddy Publishers.
- Higbee, G. (2015). Biblical counseling and soul care in the church. In Robert Kellemen(ed), *Biblical counseling and the church: god's care Through God's People* (pp. 51–71). Grand Rapids, MI: Zondervan.
- Jacob, M. L., & Storch, E. A. (2015). Computer-aided psychotherapy technologies. In N. A. Dewan, J. S. Luo, & N. M. Lorenzi (Eds.). *Mental Health Practice in a Digital World: A Clinicians Guide* (pp. 57–80).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Johnson, E. L. (2012a). 기독교 상담학(전요섭 외 역, *Foundation for Soul Care*).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원전 2007 출판).
- Johnson, E. L. (2012b). 기독교와 심리학 어떤 관계인가(김찬영 역,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2010 출판).
- Johnson, E. L. (2017). *God and Soul Car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Joyce, K. (2017). The Rise of Biblical Counseling. *Pacific Standard*. Retrieved Sep 4, 2019, from <https://psmag.com/social-justice/evangelical-prayer-bible-religion-born-again-christianity-rise-biblical-counseling-89464>
- Kim, K. B. (2016). *Embracing trauma in theodrama: embodying christiformity* (Ph.d diss.) Louisville, KY: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 Lambert, H. (2013). *Finally free: fighting for purity with the power of grace*. Grand Rapids, MI: Zondervan.
- Lambert, H. (2015). 성경적 상담의 핵심 개념(김준 역,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fter adams*).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원전 2012 출판).
- LaMothe, R. (2014). Pastoral counseling in the 21st century: the centrality of community. *Journal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68, 1–17.
- Lane, T. S. & Tripp, P. D. (2009)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김준수 외 역, *How people change*).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전 2006 출판).
- Maples-Keller, J. L., Bunnell, B. E., Kim, S. J., & Rothbaum, B. O. (2017). The use of virtual reality technology in the treatment of anxiety and other psychiatric disorders.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25(3),

103–113.

- Menninger, K. (1973) *Whatever became of sin*. New York: Hawthorne Books.
- Messias E., Castro J., Saini A., Usman M., & Peoples D. (2011). Sadness, suicide, and their association with video game and internet overuse among teens: results from the youth risk behavior survey 2007 and 2009.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41(3), 307–15.
- Mohler Jr., R. A. (2014). Foreword. In Bob Kellemen & Jeff Forrey (eds.). *Scripture and counseling: god's word for life in a broken world* (pp. 9–11). Grand Rapid, MI.: Zondervan.
- Mowrer, O. H. (1960). Sin: The lesser of two evils. *American Psychologist*, 15(5), 301–304.
- Oden, T. C. (1980). Recovering lost identity. *Journal of Pastoral Care* 34(1), 4–19.
- Piper, J. (200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백금산 역, *God's passion for his glory*).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1998 출판).
- Powlison, D. (1996).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유미영 역, *Power encounters*)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전 1995 출판).
- Powlison, D. (2013, Feb 25). The Local Church is THE Place for Biblical Counseling. Retrived Sep 4, 2019, from <https://www.ccef.org/local-church-place-biblical-counseling>
- Powlison, D. (2009). 성경적 관점으로 본 상담과 사람(김준 역, *Seeing with new eyes*) 서울: 그리심 (원전 2003 출판).
- Powlison, D. (2015) The Pastor as counselor.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6(1), 5–42.
- Powlison, D. (2016). Good and Angry: Redeeming Anger, Irritation, Complaining, and Bitterness. Greensboro, NC: New Growth Press.
- Rhodes, J. E., & Spencer, R. (2010). Structuring mentoring relationships for competence, character, and purpose.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126, 149–52.
- Schwab, K. (2016).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송경진 역,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서울: 새로운 현재. (원전 2016 출판).
- Song, J., Kim, M., & Bhattacharjee, A. (2014). *Social Science Research: Principles, Methods, and Practices*. KOCW Open Access Textbooks.

- Southern Baptist Convention. (2002) *On the sufficiency of scripture in a therapeutic culture*. St. Louis, MO.
- Vanhoozer, K. J. (1998).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the bible, the reader, and the literary knowledge*. Grand Rapids, MI: Zondervan.
- Vanhoozer, K. J. (2018). *이해를 이야기하는 믿음*(윤석인 역, *Faith speaking understanding*).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2014 출판).
- Vitz, P. C. (1977) *Psychology as religion: the cult of self worship*.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 Taylor, C. (2007) *A secular age*.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Tripp, D. P. (2007).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윤홍식 역, *War of words*). 서울: 디모데. (원전 2001 출판).
- Tripp, D. P. (2004).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황규명 역, *Age of opportunity*). 서울: 디모데. (원전 2001 출판.)
- Tripp, D. P. (2007).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황규명 역,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서울: 디모데. (원전 2002 출판).
- Ventura, S., Baños, R. M., & Botella, C. (2018).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new frontiers for clinical psychology. In N. Mohamudally (ed.). *State of the Art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knowhow*. Retrived Sep. 4, 2019, from <https://www.intechopen.com/books/state-of-the-art-virtual-reality-and-augmented-reality-knowhow/virtual-and-augmented-reality-new-frontiers-for-clinical-psychology>.
- Watson, P. J., Chen, Z., & Sisemore, T. A. (2011). Grace and christian psychology Part 2: psychometric refinements and relationships with self-compassion, depression, beliefs about sin, and religious orientation. *Edification: The Transdisciplinary Journal of Christian Psychology*, 4, 64-72.
- Welch, E. T. (2003). *뇌 책임인가 내 책임인가*(한성진 역, *Blame in on the Brain*).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원전 1998 출판).
- Welch, E. T. (2012). *큰 사람 작은 하나님*(김찬규, 김하은 역,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원전 1997 출판).
- Welch, E. T. (2013). *중독의 성경적 이해*(김준 역, *Addictions: A Banquet in*

- the Grave*).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원전 2001 출판).
- Welch, E. T. (2015). *하나님 대체 어디계세요: 우울증*(지영옥, 김은덕 역, *Depression*). 서울: 그리심. (원전 2012 출판).
- Welch, E. T. (2016). *수치심 성경적 내적 치유: 당신을 힘들게 하는 마음의 상처로부터의 회복*(김준 역, *Shamed Interrupted*). 서울: 그리심. (원전 2012 출판).
- Welch, E. T. (2018) 50 Years: how CCEF Has grown and seeks to keep growing.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32(2), 83–97.
- Zur, O. (2007). *Boundaries in psychotherapy: Ethical and clinical exploration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Abstract 】

The Present and Tasks of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in Korea for the Upcoming Wave

Kim, Kyu Bo

Chongshin University

This paper reviews the new wave of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nd proposes tasks for the upcoming Korean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Biblical counseling recently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its influence within the evangelical Christian camps in North America. The movement develops into the progressive biblical counseling, beyond the traditional perspective. This new wave has impacted on the Korean Christianity as well. The movement in Korea, initiated from evangelical schools and institutes, has introduced the concepts, values and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and now seeks to embed them into local churches and the public. At this point, the tasks of Korean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re as follows. First, a need is nurturing professional biblical counselors with expertise of theology, Christian psychology and counseling practice. Second, a task is to develop theological and Christian psychological theories (quantitative, qualitative research, and research methodology of doing psychology biblically), which support the practice of biblical counseling. Third, it is desirable to develop effective methods, counseling-structures, and tools available in the field. Fourth, creating the solidarity with local churches and social institutes, participants need to contribute to the spread of the movement of taking a role for the public faith in action. These proactive tasks would be the ready for the new wave.

Key words: Biblical counseling, Christian psychology, Doing psychology Biblically, Practical theology, Public ministry